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71
----------	-------

발의연월일 : 2021. 8. 10.

발 의 자 : 강민국 · 박성민 · 김영식  
윤창현 · 정동만 · 유의동  
한무경 · 정희용 · 서일준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벌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  
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동물”을 “동물(반려동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동물”을 “동물(반려동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벌칙) <u>&lt;신    설&gt;</u>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 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 ----- -----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	1. -----동물 (반려동물은 제외한다)----- ----- -----
<u>&lt;신    설&gt;</u>	1의2.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 -----.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 ----- -----동물(반려동물은 제외

<p>1의2. ~ 3. (생략)</p> <p>③ · ④ (생략)</p> <p>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u>한다</u>)-----</p> <p>1의2.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제4항까지의----- ----- -----.</p>
---	---